IBK경제연구소 경제분석팀(☎02-729-6623)

4월 수출입 중소기업 이슈조사

참! 좋은 은행 IBK기업은행 | IBK경제연구소

4월 수출입 중소기업 이슈조사 결과

○ 수출 기업의 47%가 현재 해외 현지법인을 보유 중으로 그 중 36%는 2~3년 이내 추가 진출할 계획 - 진출한 기업의 현지법인 소재지는 대부분 중국(51%) 또는 베트남(32%) ○ 수출기업이 해외로 진출하려는 이유는 진출 시장의 성장 잠재력(33%), 진출 국가의 저렴한 노동력 및 인프라(30%), 내수시장의 한계(22%) 때문

(1) 해외진출 현황

□ 수출 기업의 47%가 현재 해외 현지법인을 보유하고 있으며 그 중 36%는 향후 2~3년 이내 추가 진출을 계획하고 있음

○ 현지법인은 대부분 중국(51%), 베트남(32%)에 소재하고 그 외 인도(5%), 인도네시아(4%) 등으로 나타남

○ 진출 기업은 섬유·의류(20%), 일반 및 정밀기계류(17%), 자동차부품(15%) 업종이 주를 이룸

○ 연간 매출 규모와 수출 규모(통관금액 기준)가 큰 기업이 현지법인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가 많음

- 연간 매출 '1,000억원 초과' 기업의 64%, '100억원 초과 1,000억원 이하' 기업의 46%, '100억원 이하 기업'의 27%가 현지법인을 보유
- 연간 수출 '1,000만불 초과' 기업의 65%, '100만불 초과 1,000만불 이하' 기업의 40%, '100만불 이하'인 기업의 32%가 현지법인을 보유

□ 현지법인이 없는 기업 중 향후 2~3년 이내에 해외진출을 계획하고 있는 기업은 22%에 그침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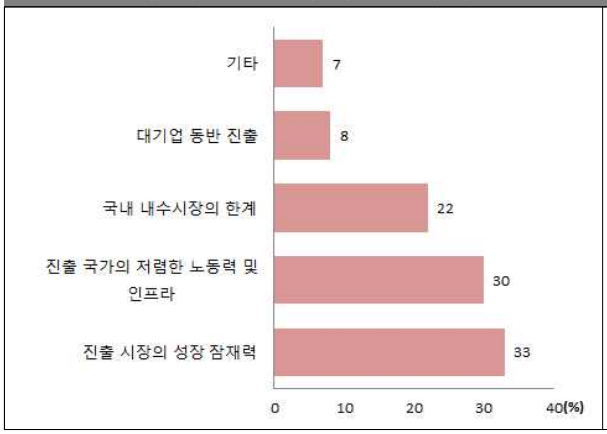
○ 향후 2~3년 이내 해외진출을 계획 중인 전체 기업*의 진출 예정 국가는 베트남(30%), 중국(22%), 남미(11%) 등이며, 주요 산업군은 섬유·의류(19%), 전자·전기(11%)로 나타남

* 현재 해외 현지법인을 보유한 기업과 미보유한 기업을 모두 포함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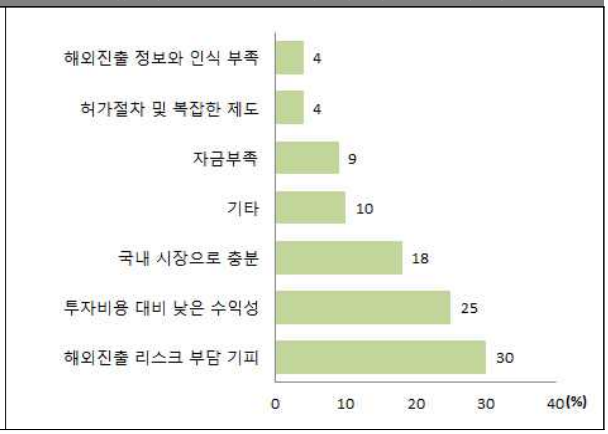
□ 수출 기업은 진출 시장의 성장 잠재력(33%), 진출 국가의 저렴한 노동력 및 인프라(30%) 등을 이유로 해외진출을 계획

○ 해외진출을 기피하는 이유는 해외진출에 따른 리스크 부담(30%), 투자비용 대비 낮은 수익성(25%) 때문으로 나타남

해외진출 하려는 이유



해외진출을 기피하는 이유



□ 해외로 진출하려는 기업의 88%가 해외진출 방법으로 신규법인 신설(지사설립 포함)을 고려하고 있으며, 12%는 M&A를 고려

□ 해외진출 해당 국가의 정보는 KOTRA에서 얻는 기업(30%)이 가장 많음

○ 그 외 컨설팅회사(22%), 한국무역협회(19%), 기타*(19%), 외교부·산업통상자원부 등 정부 부처(4%), 한국무역보험공사·중소기업청 등 정부 산하기관(4%), 거래은행(4%) 순으로 나타남

* 이미 진출한 동종업체 또는 직접 해당 국가 방문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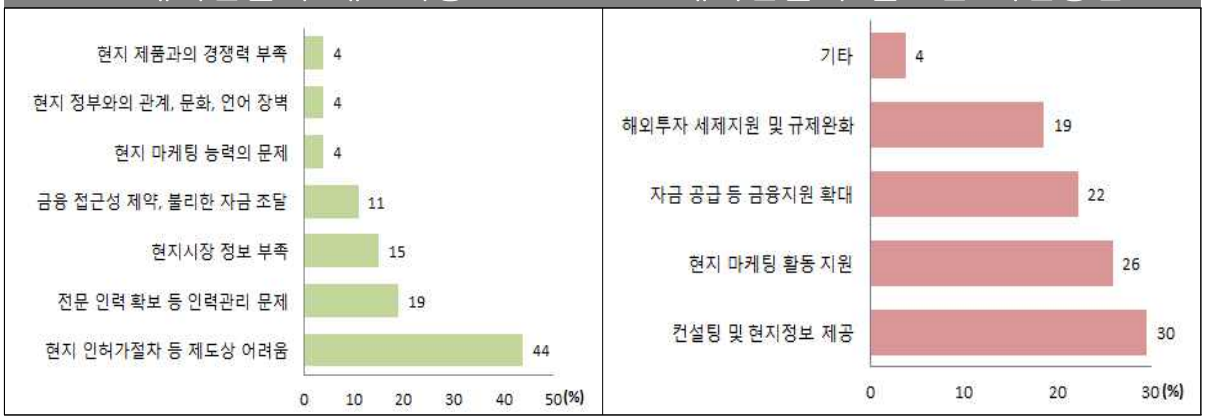
□ 해외진출 기업은 추진과정에서 현지 인허가절차, 규제 등 제도상의 어려움(44%)을 가장 많이 호소

○ 그 외 애로사항으로 전문 인력 확보 등 인력관리 문제(19%), 현지시장 정보 부족(15%), 금융 접근성 제약 등 불리한 자금 조달(11%) 등이 조사됨

□ 해외진출 기업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컨설팅 등 현지정보 제공(30%)

○ 그 외 현지 마케팅 활동 지원(26%), 자금 공급 등 금융지원 확대(22%), 해외투자 세제지원 및 규제완화(19%), 기타(4%)순으로 나타남

해외진출시 애로사항	해외진출시 필요한 지원방안



< 조 사 개 요 >

1. 조사기간 : 2015. 4. 15 ~ 2015. 4. 19 (3영업일간)
2. 조사대상자 : 당행 거래 중소기업 145개사
3. 응답 비율 : 66%(96개사)

(2) 최근 원/달러 환율 동향

□ 4월 원/달러 환율은 글로벌 금융시장 불안 완화로 하락세

○ 글로벌 금융시장이 비교적 안정되고 국제유가도 상승하면서 투자심리가 개선되며 하락세를 보였으나,

○ 최근 주요국 통화정책 회의를 앞두고 긴장감이 더해지며 원/달러 환율이 상승하는 모습

'16.4월 환율 추이

주 : 서울외국환중개 고시 기준, 자료 : 한국은행